

## 보도설명자료 (‘17. 11. 8.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정부, 외국인투자주간 홍보 ‘뽕튀기’(‘17. 11. 8,  
내일신문)

### 1. 기사내용

- 산업부는 2017 외국인투자주간 행사가 역대 최대규모 행사(2,500명)라고 소개했으나, 2017년에 추가된 예상 구직자 수(1,500명)를 제외하면 작년 참석인원(1,323명)이 훨씬 많음
- 지난해 개막식, 라운드테이블에 장·차관이 참석했으나 올해는 무역투자실장이 참석하는 등 정부가 외국인투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단적으로 드러남

### 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- 올해 외국인투자주간 행사에 참여한 방한투자자, 주한외투기업, 국내기업 규모가 작년에 비해 줄어든 것은 사실이나,
  - 가중되는 청년 취업난과 정부의 일자리 중심 경제 기조 정책을 반영하여, 작년대비 ‘외국기업 취업상담회\*’ 행사가 신설되어 행사에 참여하는 구직자 수를 추가하여 산정하게 되었음
- 금번 행사기간 중 국회 일정 등으로 작년과 달리 장·차관의 개막식, 라운드테이블 등 행사 참석은 어려웠으나,
  - \* 작년에는 9.27~29일 기간 개최하여 국회일정 등과 중복되지 않았음

- 11.7일(화) 개최된 외국기업의 날 행사에는 장관이 직접 참석하여 외국인투자 유치 유공자 포상과 함께 외국인투자에 대한 정부의 큰 관심을 표명하였음

- 산업부는 앞으로도 고위급이 참여하는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한국의 투자 강점과 기회를 소개하고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할 계획임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 김용채 과장 (044-203-4070)  
곽근열 사무관 (044-203-4072)

try of Trade,  
try and Energy